

제목: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본문: 마태복음 16장

· 바리새인 - 왕당, 권력, 자의
· 사두개인 - 율법주의, 사후세계론, 계승론, 기원론.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2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Amu.

마태복음 16장은 전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와 14 세례요한. 안병이어 풍중비다. (시베리아)
 와 15 삼일초(바리새. 시몬), 개산이어 (대성령 역), 7명의 (이방인)

1.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1-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죄성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지만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것에서도 협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문제 해결사'로서의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유일한 표적인 요나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기적 체험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표적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거부합니다. 오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성공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앞의 기적을 통해 믿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한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장로의 유전으로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현세주의와 권력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현재의 기득권과 타협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공통된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에게서의 누룩은 현실의 염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도 당장의 '떡'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런 누룩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대신 성공, 축복, 세속적 영향력만을 강조할 때 이미 바리새의 누룩에 물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복음임을 믿는 순복음 사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13-20절)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예수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인식하지만, 참된 신앙은 예수를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된 신앙고백은 인간의 결단이나 학습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 p:3 성경은 아니라 부활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18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이시고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고백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혈육이나 종교 행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연약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고백의 터위에 세워집니다.

훗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인간적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드시고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9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열쇠의 진짜 의미는 종교 권력이 아닙니다. 특정 인간이나 제도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독점적 권력이나 교황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삼천 명, 오천 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곧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닫히는 영적 권위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 전파의 천국열쇠를 지닌 자로서 복음전도에 힘쓰시는 순복음 사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십자가를 지는 제자 (21-28절)

21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2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직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반대합니다.

>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는 영광의 그리스도는 원했지만 고난 받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시는데 메시아 왕국의 영광만 기대했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영적 깨달음조차 인간의 본능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일은 지향점이 이 땅에서의 생존, 성공, 고난 회피입니다. 메시아관은 기적을 베푸는 영광의 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하고 롬 8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인 이는 그의 법이 영광의 애초부터 애초부터 갖추어 주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시아관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결과는 율법의 요구 성취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6:24)

1단계) 자기부인 -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선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단순한 금욕주의나 고생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영광과 가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복음은 그런 자아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고, 제자의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2단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
 -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 세상의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 입니다.

3단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확장을 위해 예수를 도구로 쓰는 종교 생활을 멈추고,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주님의 뒤를 잠잠히 걷는 것입니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썩어질 세상의 전부를 얻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

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릴 때 찾아옵니다.

27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의 행위는 천국에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종교적 실적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나를 위해 썼는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았는가의 방향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자기실현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망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태복음 16장은 십자가를 대하는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1.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1-12절) *바리새인, 사두개인.*
2.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13-20절)
3.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제자들(21-28절)

십자가만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유일한 표적은 문제해결이 아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유일한 반석은 인간의 혈육이 아닌, 하늘이 주신 참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한 부르심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